

일본해에 관한 호칭 문제(독일에서의 조사) : 개요

일본 외무성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, 베를린 주립 도서관 운타 덴 린덴관과 포츠담 광장관 및 고미술 니콜라스 슈트룩크(Antiquariat Nikolaus Struck)에 보관된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지도에서, 일본해 해역이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.

그 결과, 조사한 고지도 1,401점 중에서 일본해 해역에 관한 언급이 있는 지도는 984점이었다. 그 중 62.3%에 해당하는 614점에 [일본해]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또한, 19세기에 작성된 지도 중, 대상 해역에 관한 명칭이 기재된 지도 535점 가운데에, 약 91%에 해당하는 487점의 지도에서 [일본해]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. 지금까지 미국, 영국, 프랑스, 러시아에서 실시한 조사에 이어서 본 조사를 통해서도, 일본해라는 호칭이 일본의 쇄국 정책 하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19세기 초엽부터 서구에 정착되어 왔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.

주 : 한국 측은 예전부터 “일본해의 명칭이 지배적으로 된 것은 20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, 식민주주의의 결과이다”, “19세기 중엽부터 말에 이르기까지는 세계 지도에서 동해와 [일본해]라는 명칭이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” 라고 주장해 왔다. 한국 측은 이에 관한 근거로서, 독일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한 고지도 조사를 들고 있다. 조사에 따르면, 한국 측은 베를린 주립 도서관 및 지도 수집가 슈트룩크 씨가 소장하고 있는 59점의 지도를 조사하였다. 한국과 관련한 명칭은 50.8%에 해당하는 30점[Sea of Korea(16), East(Oriental) Sea(10), Sea of Korea, East Sea의 병기(4)] 이었고, 일본과 관련한 명칭(Sea of Japan)은 5.1%에 해당하는 3점에 불과했다고 한다.